

## 작품의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

- 거트의 윤리주의 비판\* -

이 해 완

(서울대학교 미학과)

### 1. 들어가며: 논의의 배경과 글의 구성

도덕적인 예술 작품은 그 이유로 인해 예술적으로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비도덕적인 작품은 그 이유로 인해 예술적으로도 나쁜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예술과 도덕이라는 유서 깊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은 많겠지만, 두 가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라면 아마도 이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예술의 자율성, 미적 영역과 미적 가치의 고유성, 무관심성, 형식에 대한 주목 등 근대와 현대에 걸쳐 발전되어 온 미학적 개념들 및 예술 비평적 용어들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진 궁금증이다. 즉 미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별도로 설정되고 그것이 고유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주제어: 분석 미학, 예술과 도덕, 도덕적 가치, 윤리주의, 베리스 거트  
Analytic aesthetics, art and morality, moral value, ethicism, Berys Gaut

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위 질문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대답은 ‘아니다’였던 것 같다.<sup>1)</sup> 예술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고, 따라서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별개라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면서 분석 미학에서 진행되었던 논의는 이러한 견해를 재고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도덕적 기준에 의한 예술 평가(도덕적 비평)를 부정해 왔던 예술지상주의와 같은 입장이, 오히려 예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왜곡되고 일면적인 이해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현대적 반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분석 미학이, 그와 방법론을 공유하는 분석적 윤리학과 인식론의 도움을 받아 예술 가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자, 예술 철학의 영역에서도 예술이 미적 가치 이외의 가치(소위 인지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지, 그런 가치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예술적 가치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의 연관도 질문이 되기 시작하였다.<sup>2)</sup> 이 질문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답변들은 일반적으로 자율주의, 도덕(윤리)주의, 비도덕주의로 구분되곤 한다.<sup>3)</sup> 이들 중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 나아가 보다 근본적

1) “칸트의 영향을 받은 형식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사고, 신비평 등이 예술에 대한 윤리적 비평을 예술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고 개념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었다.” Carroll(2000),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Ethics* 110, p. 350.

2) 예를 들어 캐롤은 ‘온건한 도덕주의’로 이름 붙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거트, 이튼, 스테커, 키이관 등도 이리저리한 형태로 두 종류 가치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래된 직관이나 입장들의 설득력이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대표적으로, 앤더슨과 딘의 입장인 ‘온건한 자율주의’를 들 수 있다) 상황은 논쟁적이다.

3) 용어와 관련하여, 이 글 내내 필자는 도덕과 윤리, 도덕주의(Moralism)와 윤리주의(Ethicism)라는 용어의 차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비도덕주의(Immoralism)는, 원어이건 번역어이건 이름이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

인 문제로, 이들 간의 쟁점이 과연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작품의 도덕성과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작품의 미적 혹은 예술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전제들을 검토해 본 후 판단되어야 할 것 같다. 이 글은 그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미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이해되면 좋을 듯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이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예술 작품도, 어떠한 근거에서도,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없지는 않지만 이는 극단적인 입장이고 타당하지 않다. 의도의 산물이고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인 예술 작품은 다른 모든 문화 산물이나 제도가 그렇듯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작품의 어떤 측면을 근거로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모든 예술 작품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과 어떤 종류의 작품(특정 장르나 형식)들만 그럴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의 건전함’을 기준으로 작품의 도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메시지(내용)를 찾기 어려운 추상화나 순수 기악곡을 제외하고, 서사가 있는 재현적 작품만이 도덕적 평가에 적절한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작품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도를 포함한 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읽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나 (이런 경우, 작품의 도덕성은 작가의 도덕성과 더 가까워진다) 혹은 도덕적 효과의 산출 여부를 근거로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아마도 모든 예술 작품이 이들 기준들을 적용해 도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번역어로 ‘반도덕주의’가 제안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므로) 관행적인 용어 사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어찌되었건 예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적절성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다음의 질문이다.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예술적 가치, 즉 예술을 예술로서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 이 글 첫머리의 질문을 하기 위한 전제로도 볼 수 있을 이 질문도 역시 우리가 도덕적 가치 평가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여기느냐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필자가 보기에는 우선 두 가치 평가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입장, 즉 도덕적 가치 평가가 겨누어지는 작품의 국면과 예술적 가치 평가가 겨누어지는 작품의 국면이 다르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입장(a)이 있을 수 있다.<sup>5)</sup> 그것이 아니라면 두 가치 평가가 별개이지만 어떤 법칙적인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는 입장(b)(도덕적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면이 언제나, 반드시 예술적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면에 영향을 끼친다)을 취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두 가치가 결국 동일한 국면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입장(c)을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윤리주의 계열이 a를 거부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b와 c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는 불분명한데, 필자는 그 이유가 바로 도덕적 평가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윤리주의가 작품의 도덕성 평가 기준에 대한 기존 관행(소위 ‘관점의 도덕성’ 기준)을 따르면서 b의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이기에 실패한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만일 c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했을 경우라면 도덕적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와 함께 그렇게 주장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4) 작품의 도덕적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Harold(2006), “On Judging the Moral Value of Narrative Artworks”, *JAAC* 64가 있는데, 이 글에서 필자가 제안하려는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가치 평가가 예술적 속성에 의존하는 경우에 대한 해롤드의 논의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다.

5) 자율주의 계열이 이 입장일터인데, 이 입장도 두 가치 간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도덕적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면으로 인해 우연적으로 예술적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작품의 국면이 변경된 경우)를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간의 영향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양상에 대한 질문, 즉 이 글 첫머리의 질문이자 윤리주의와 비도덕주의 간의 쟁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관련된다면, 도덕적 가치의 증가는 예술적 가치의 증가를 초래하고, 도덕적 반가치(비도덕성)의 증가는 예술적 감소를 초래하는 식으로만 연계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윤리주의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반가치에 의해 증가되는 예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비도덕주의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도덕적 가치 평가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이 글에서 필자가 제안하려는 도덕적 가치 평가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다면, 그에 따른 두 입장 간의 쟁점은 훨씬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작품의 도덕적 가치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도덕과 예술 두 가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모든 차원에 개입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일 작품의 도덕적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작품의 비도덕성이 항상 예술적 가치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여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거트(Berys Gaut)의 윤리주의가 어떤 문제를 범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우선 예술 작품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논의의 과정의 결과 대두되는 것이 ‘해석을 통해 알려진 작품의 관점에 근거한 도덕성’이라는 기준이다. 윤리주의 역시 이 기준으로 작품의 도덕성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관점의 도덕성’이 미적 가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주의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작품의 도덕성을 관점의 도덕성으로 이해하는 한, 그러한 의미의 도덕성은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에 대하여 윤리주의자가 주장하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윤리주의의 부적절함을 보여줄 기존의 반례나 반대 논변<sup>6)</sup>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글에서 보이고자 하는 윤리주의의 문제점(순환성과 작위성)으로 인해, 윤리주의는 반례들을 해결할 적절한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절반의 목표이다.

한편 윤리주의의 비판 과정을 통해, 윤리주의자조차도 도덕성을 미적인 것과 연관시키고자 할 때는, 은연중에 ‘관점의 도덕성’과는 다른 도덕적 가치 개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려 한다. 이 다른 의미의 도덕적 가치 개념을 구분해 내고 설명해 보려는 것이 이 글 후반부의 목표이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예술적 가치의 일종으로 보아야 마땅한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런 이해 하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증감과 예술적 가치의 증감은 동일한 작품의 속성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될 것이어서 (즉 입장 c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 평가가 곧 예술적 가치 평가이므로) 이러한 의미의 도덕적 가치를 가진 작품은 동시에 예술적 가치도 가진 것이 된다.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없는 작품이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거나 없게 된다는 이 귀결은 외견상으로는 윤리주의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입장들이 작품의 도덕적 평가 기준으로 전제하고 있는 ‘관점의 도덕성’과는 달라야 한다. 이 두 도덕적 가치 평가를 구분<sup>7)</sup>할 경우해야 비로소 윤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미적-예술적 가치

6) Anderson and Dean(1998), “Moderate Autonomism”, *BJA* 38이나 박상혁(2007), 『도덕적으로 나쁜 예술작품이 미적으로 좋은 예술작품일 수 있는가?』, 『미학』 50에서 제기된 반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 멀린은 작품의 도덕성을 평가 위해 ‘도덕적 건전성’(moral soundness)의 측면과 ‘도덕적 중요성’(moral significance)의 측면을 구분하는데, 필자가 시도하려는 구분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Mullin(2002), “Evaluating Art: Morally Significant Imagining versus Moral Soundness”, *JAAC* 60 참조.

와 연동하는 도덕적 가치, 즉 예술적 속성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인지적 가치의 일종으로서의 도덕적 가치 평가가 되는 그런 도덕적 가치의 성격이 제대로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작품의 도덕성 판단 기준

첫 질문으로 돌아가, 작품은 여러 측면에서 도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우선 도덕적인 작품이라는 말부터가 해명해 보자. 해롤드(James Harold)의 구분이 참고가 될 수 있다.<sup>8)</sup> 작품은 우선 제작 과정이나 제작 의도 등에 의해서도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기형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나 시신을 소재로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가 만일 사진의 재료가 되는 시신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작품은 그러한 의미에서 비도덕적이라 불릴 수 있다. 특징인을 모독할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은, 그 의도가 잘 구현되었건 아니건, 또 그런 모독에 성공했건 아니건, 여전히 의도의 측면에서는 비도덕적인 작품이라고 불려도 될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은 감상자들에게 끼친 영향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도덕적/비도덕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사회적 통념에서 도덕적인 문제작으로 거론되곤 하는 작품들은, ‘인간성을 타락시킬 것’이라는 비도덕적 예술에 대한 해묵은 우려를 위시하여, 대개 ‘감상자에게 미치는(혹은 미치리라 예상되는) 영향력’을 근거로 삼아 판정된 경우들이다. 그러나 해롤드는 이러한 도덕성 판단은 정황적이고 우연적인 근거에 따른 것들이어서, 경험적 증거가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이들은 예술이 아닌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들이므로, “예술적 속성과

8) Harold, *op.cit.*, pp. 260~263.

도덕적 가치 간의 특별한 관계가 지지될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니”<sup>9)</sup>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예술 내적인 이유들을 제시한다.

우선, 예술 작품을 문자 그대로 인격체로는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작품은 작가의 태도와 관점이 표명된 것임이 분명하다. 특정 메시지에 대한 찬반이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실제 작가의 태도와 관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해석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함축된 저자’(implied author)의 태도와 관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함축 저자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태도를 주장하거나 승인하고 있다면 해당 작품은 예술 내적인 기준에서 비도덕적인 작품이 된다. 비록 ‘함축된 저자’라는 개념이 해롤드에 의해서는 의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sup>10)</sup> 작품의 태도와 의미를 해석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작품이 이런 의미로 도덕적/비도덕적이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롤드가 보다 더 지지하는 내적인 기준은 ‘함축된 저자’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작품이 규정하는(prescribe) 반응(혹은 작품에 의해 요청되는 반응)’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작품은 감상자들에게 도덕적 함축을 가진 특정한 전제에 상상 속에서도 동의해보도록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작품이, 그 서술 방식이나 태도를 통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각이 세계에 관한 당연한 사실인 듯, 전제와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비도덕적인 내용을 갖는다면 그러

9) *Ibid.*, p. 261.

10) *Ibid.*, p. 261. 해롤드는 실제 저자와 나레이터 말고 또 다른 저자가 있다는 것은 미심직은 사실이거나, 아니라면 그런 저자가 있더라도 도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인격체인지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의 근거를 충분히 밝혀 놓고 있지는 않다.

한 작품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을 희극적으로 보아주기를 요청하는 작품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작품이 된다.

이 기준이 ‘함축된 저자’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작품이 규정하는’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작품의 관점과 시각에 대한 해석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결국 작품 내적 측면에서 평가된 작품의 도덕성이란, 함축적 저자 개념을 활용하건 규정된 반응 개념을 이용하건, 합리적 과정을 통해 도달한 작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작품의 관점과 시각을 기준으로 작품에 부여하는 도덕적 평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3. 윤리주의

거트는 2007년의 책<sup>12)</sup>을 통해 그가 1998년 논문<sup>13)</sup>에서 그 골자를 제시한 바 있었던 윤리주의(Ethicism)의 입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옹호하는데, 그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다.

작품이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결점**을 지니고 있을 때, 작품은 항상 **그것만큼** 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A work is always

11) 비도덕성의 판정을 이러한 내적인 기준에 의존할 경우, 이는 현실에서의 예술과 도덕에 대한 논의를 다소 김빠지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도덕적 문제의 논란에 휩싸였던 작품들(예를 들어, 메이플솔프나 세라노의 사진 작품들) 중 다수는, 그것의 사회적 파장이 아니라 관점이나 반응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상 비도덕적이라고 평가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 Gaut(2007), *Art, Emotion and Ethic*, Oxford University Press(이하, AEE로 약하여 본문에 출처를 표기함).

13) Gaut(1998),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in J. Levinson (ed.), *Aesthetics and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esthetically flawed *in so far as* it possesses an *ethical demerit that is aesthetically relevant*. 강조는 필자.). 또한 작품이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을 때, 작품은 항상 그것만큼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AEE: 52).

우선 이 입장의 배경과 함축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윤리적 결함’이란 무엇인가? 앞 절의 해롤드의 설명과 유사한 정신에서 거트 역시 작품이 실제 감상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우연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도덕적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이유로 비도덕적이 되는 것은 미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거트의 예는 자유민주주의를 찬양한 소설이 정정이 불안정한 국가의 군부를 자극하여 오히려 반민주적 쿠데타가 촉발된 경우이다.). 반면 작품에 본유적인 윤리적 결점이 있는데, 이는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작품이 표명하고 있는 태도에서 보이는 윤리적 결점”(ethical flaws in the attitudes that works manifest towards their subjects)을 가리킨다(AEE: 229). 따라서 작품은, 표명하고 있는 태도에서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결함을 노출하고 있을 경우, 그 결함만큼 미적으로도 결함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만일 작품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만한(reprehensible)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작품은 그 만큼 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고, 작품이 윤리적으로 칭찬받을만한(commendable)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만큼 미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이다.”<sup>14)</sup>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적’이라는 용어이다. 대개 도덕적 가치와 영향 관계를 가진다고 하기에 좀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미적 가치라기보다는 예술적 가치이다. 미적 가치는 예술적 가치(예술이 예술로서 가지는 가치)보다 좁은 의미로, 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관련되는 가치(미적 쾌나 미적 경험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14) *Ibid.*, p. 182.

나 거트는 이러한 관행과는 별도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미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트는 ‘예술을 예술로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가치를 ‘미적’ 가치라고 부르하고자 한다(AEE: 34). 이는 마치 용어는 ‘미적’을 취하고 그 외연은 ‘예술적’을 취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최상위의 미적 가치를 아름다움으로 간주하고, 아름다움은 예술이 아닌 자연물에서도 발견된다는 상식에 근거하여, 최소한 미적과 예술적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에게는 거트의 이러한 용어 사용이 불필요한 혼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윤리적 가치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형식적 측면에 국한하여 이해되는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 거트의 의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의 용어법을 따르건 그의 의도를 따르건(이 경우 그의 ‘미적’은 ‘예술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일관되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윤리주의의 입장은 또한 지난 십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논의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주요한 입장으로는 온건한 자율주의<sup>15)</sup>로 명명된 자율주의적 방향과, 거트의 윤리주의와 캐롤(Noel Carroll)의 온건한 도덕주의<sup>16)</sup>를 아우르는 윤리(도덕)주의적 방향, 그리고 제이콥슨(Daniel Jacobson)<sup>17)</sup>이나 2003년 이후 키어란(Matthew Kieran)<sup>18)</sup>의 입장인 비도덕주의를 거론 할 수 있겠는데, 거트는 이들을 자신이 내세우는 기준에 따라 자율주의, 윤리주의, 맥락주의(contextualism)로 다시 정리하기를 원한다(AEE: 51~57). 이때의 정리 기준은 두 가지로, 첫째, ‘미적 관련성’(aesthetic relevance) 기준

15) Anderson and Dean, *op.cit.* 참조.

16) Carroll(1998), “Moderate Moralism versus Moderate Autonomism”, *BJA* 38 참조.

17) Jacobson(1997), “In Praise of Immoral Art”, *Philosophical Topics* 25 참조.

18) Kieran(2003), “Forbidden Knowledge”, in Gardner and Bermudez (ed.), *Art and Morality*, Routledge 참조.

은 윤리적 장단점이 미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나누는 기준이다. 두 영역은 결코 관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자율주의인데 반해 나머지 입장들은 모두 관련성을 인정하므로 첫째 기준에 의해 자율주의와 나머지 입장들이 구분된다고 한다. 둘째는 ‘관련의 방향성’ 기준인데,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도덕적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식의 역방향의 관련을 인정하는 입장과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따라서 윤리적 장점은 미적 장점으로, 윤리적 단점은 미적 단점으로서의 방향성만 인정하는 입장)이 갈린다. 후자의 입장에 서는 거트는 이 기준을 이용하여 자신의 윤리주의를 비도덕주의와 구별하는데, 그는 비도덕주의란 두 영역의 연계 방향이 맥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므로 맥락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온건한 도덕주의라고 불리는 캐롤의 입장<sup>19)</sup>과 윤리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거트는 자신의 입장과 캐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AEE: 49) 자신의 입장이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더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sup>20)</sup> 우리의 첫 인상과는 달리 두 영역이 “항상” 관련된다고 하는 거트와, 두 영역이 “때로”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캐롤의 입장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캐롤의 오해와는 달리 거트 스스로 명시적으로, 두 영역이 “항상” 관련된다고 하는 입장, 즉 ‘모든 윤리적 장단점이 미적으로도 장·단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19) 캐롤의 주장의 핵심은 ‘때로(sometimes)/어떤 경우에는(in some instances) 작품의 도덕적 결점이 미적 결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Carroll(1998), *op.cit.*, p. 419과 Carroll(2000), *op.cit.*, p. 377).

20) 실제로 캐롤은 거트의 주장은 자신의 것보다 “야심적”이고, 자신의 주장은 거트의 것에 비해 “덜 전면적”(less sweeping)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Carroll(1998), *op.cit.*, p. 419) 이는 잘못이다. 이렇듯 거트의 입장은 실제 주장보다 강한 것으로 착각되는 경향이 있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AEE: 52).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표현은 거트의 정식화에 등장하는 “관련된”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캐롤의 “때때로”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관련된 경우에는 항상”과 “때때로”는 결국 같은 말인 것 같다.<sup>21)</sup>

작품의 미적 속성과 윤리적 속성이 상호 관련을 맺을 때, 거트 역시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모든 속성이 언제나 미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이 되는 식으로는 연결되지 않으며, 미적으로 무관한 윤리적 결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쿠테타를 촉발시킨 소설도 그 예가 되겠지만 보다 흥미로운 것은, 우연적 속성이 아닌 작품 내재적인 윤리적 특성이라고 해도 모두 미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거트 자신의 예이다. “마지막 장에 ‘친절은 미덕이다’와 같은 평범한 도덕적 경구들의 목록을 첨부한 소설”(AEE: 50)을 예로 들면서 거트는 이 소설이 이 특징들로 인해 미적으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초래한 통일성의 훼손, 피상성 등으로 인해 나빠질 수는 있다.) 왜 그렇게 될까? 거트의 답은 당연히, 이러한 작품의 도덕적 특성은 미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캐롤 식의 오해를 제거하고 거트의 진의를 펼쳐놓는다면, 단순히 모든 도덕적 장단점이 미적 장단점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1) 작품이 윤리적으로 부정적인/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2) 그 속성이 미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그 경우(에는 항상) 작품은 그것만큼 미적으로 결함/장점 있는 작품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는 거트가 (1)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 알고 있다. 앞서 말

21) 그래서 만일 캐롤이 어떤 이유에서건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 비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연관관계(비도덕성으로 인한 미적 가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캐롤의 입장은 애매하다. Carroll(2000), *op.cit.*, p. 379) 결국 캐롤의 입장과 거트의 입장은 동일하다. 양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변으로 ‘적절한/마땅한 반응 논증’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윤리주의 비판은 온건한 도덕주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대로, 작품이 표명하는 도덕적 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2)와 관련해서는, 주어진 윤리적 속성이 미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사실 (2)를 판단하는 기준은 겉보기 보다는 훨씬 더 거트 주장의 핵심에 다가가 있는 것으로, ‘미적 관련성이 확보된다면’은 조건절이라기 보다는 윤리주의의 주장 그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거트의 윤리주의가 불만족스럽게 보이는 이유 하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필자가 보고 있는 대로 만일 주어진 윤리적 속성의 미적 관련성 여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윤리주의의 핵심 과제라면, 직관적으로 ‘미적 연관성이 있는 윤리적 특징’이라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진 작품을 찾아, 그 속에서 윤리적 장점이 미적 장점과, 또 윤리적 단점이 미적 단점과, 항상 연결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는 결코 윤리주의를 증명할 수 없다. ‘미적 연관성이 있는 윤리적 특징’을 택한 이상 그 속에서 두 영역이 항상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주의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특징이 미적 연관성을 가진 것이냐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윤리주의는 증명해야 할 것을 전제하는 순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드로스트의 「밋세바」<sup>22)</sup>를 언급하면서 거트는, 이 작품의 관음증적인 관점과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작품이 가진 도덕적 단점이라 하고 있으며, 거트는 이것이 작품에 대한 적절한 미적 평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한다. (AEE: 19) 즉 이 도덕적 단점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줄 ‘미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단점’이어서 작품은 그만큼 미적으로도 열등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이 작품의 관음증적 관점이 미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만일 자율주의자가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관점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작품의 미적 가치는 이에 영향 받

22) Willem Drost, 「Bathsheba with King David's Letter」, 유화, 1654년 작.

지 않고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윤리주의의 논변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거트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속성’이란, 윤리적인 것이 미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미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어떤 조건 하에서라면 윤리적 성질은 곧 미적 가치이다”(under certain condition, ethical qualities of works of art *are* aesthetic values)(AEE: 83)라는 주장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필자도 동의하고 싶은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관점의 도덕성을 취하는 거트 식의 윤리적 속성이 미적 가치가 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거트가 자신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세 종류의 논변은 마치 그가 전제하고 있는 미적 관련성의 기준, 즉 윤리적 성질과 미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줄 것처럼 기대하게 한다. 그가 제시하는 논증은 셋인데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미’(moral beauty) 논증: 윤리적 가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아름다움이므로 따라서 윤리적으로 좋은 성질을 표명하고 있는 작품은 (그 자체로) 일종의 미를 소유한 작품이라는 주장과 이를 위한 논증. (2) 인지적 논증: 윤리적 통찰을 전하는 작품은 그만큼 미적으로도 좋다는 논증. 이 논증에 따르면 윤리적 통찰이 곧 미적 가치이다. (3) ‘적절한/마땅한 반응’(merited response) 논증: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윤리적으로 적절한 반응’으로서 요청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반응은 미적인 가치가 된다는 논증.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세 논증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도덕적 미’ 논증에서 거트는 철학사적 전통을 인용하고, 심지어 선한 행동을 반추할 때 느끼는 쾌가 미에서 느끼는 쾌와 현상적으로 같다는 식의 ‘덕의 현상학’까지 동원하면서 “도덕적 미덕은 곧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a quality is a moral virtue if and only if it is beautiful character trait)임을 수립하려 한다(AEE: 107~132). 그

런데 이는, 만일 입증에 성공한다면, 모든 윤리적 속성에 대해 적용되는 보편인 주장이다. 즉 이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모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상찬에는 동시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평가도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미적 연관성의 조건이라면 이는 결국 작품의 모든 윤리적 특성에 대해 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결과는 모든 윤리적 속성이 항상 미적이지는 않다는 거트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 평범한 도덕적 경구들이 덧붙여진 작품에 대해 내린 거트 자신의 평가, 즉 이는 윤리적 장점이 미적 장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고 그 이유는 이것이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평가와 충돌하는 것이다. ‘도덕적 미’ 논증과 일관적이라면 이 작품에 대해, 최소한 도덕적 경구들에 대해 승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 만큼은 미적으로도 좋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지적 논증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모든 윤리적 통찰은 미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면 거트의 입장에 대한 반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여기서의 논증이 ‘미적 관련성을 가진 윤리적 통찰은 미적 가치를 가진다’를 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순환적이다. 즉 미적 관련성의 조건 대신 보여주는 것이 그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윤리적 통찰이 곧 미적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지는 여전히 직관적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면 결국 거트는 미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변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이해가 옳다면, 진부한 도덕적 진리를 평이하게 주장하고 있는 작품은 여전히 윤리주의를 곤란하게 몰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례이다.<sup>23)</sup> 이러한 예는 실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영화

23) 거트가 윤리주의를 강한 버전과 약한 버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함이 되고 도덕적 장점이 미적 장점이 된다는 것을 둘 다 주장하는 것이 강한 버전이고 전자만을 주장하고 도덕적 장점과 미적 장점과의 연계는 포기하는 것이 약한 버전

『매춘』<sup>24)</sup>은 당시 유행하던 (소위 ‘호스티스물’로 불렸던) 에로티시즘 영화의 상업적 동기와 문법을 그대로 따르면서(이 점에서 드로스트의 『빛 세바』와 다르지 않다) 다만 영화의 말미에 여전사와 같이 변해버린 여주인공 매춘부의 입을 통해 매춘(買春)이 있어 매춘(賣春)이 있다는 식의 감상적인 입장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외관적으로는 “에로티시즘 영화이면서 동시에 ‘매춘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비판한다”<sup>25)</sup>는 평을 듣기도 한 작품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당시 사회의 성 도덕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깊이 없는 인물들, 상투적인 사건 전개, 메시지(만일 마지막 부분의 ‘설명’이 작품의 일관된 메시지라면) 전달에 동원된 예술적 기교의 투박함이 관객들을 아연케 할 정도임을 고려하면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시지만큼은, 그것의 감상성과 상투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관점을 승인하거나 도덕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명료한 권선징악적 관점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세계 평화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자는, 도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입장을 취하는 대부분의 허리우드 영화들 중 어느 하나를 떠올려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 특성이 작품의 예술적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이 예들은 도덕적 장점이 곧 미적 장점이라는 윤리주의의 주장과 충돌하게 된다.

거트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장치는, 위의 공식에서 ‘그것만큼’(in so far as)이라는 구절로 대변되는 ‘프로 탄토’(pro tanto) 원칙일 것이다. 즉 작품의 도덕적 장단점은 작품 전체를 미적으로

---

이다. 거트는 스스로 강한 버전을 옹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AEE: 52~53), 만일 약한 버전만 참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주의는 의미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24) 유진선 감독, 1988.

25) 김형석, 『일요신문』, 2010년 6월 4일.

가치 있는 것 혹은 결합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장점 혹은 단점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작품은 도덕성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평가적인 국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윤리적 결합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작품을 미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으로 만들지라도, 다른 부분의 미적인 월등함이 그 결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면 그 작품은 전체적으로(overall) 미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AEE: 61). 윤리적 장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작품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예술적 선택들이 압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미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작품으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다. 거트는 아마도 「매춘」이나 할리우드 영화들의 경우,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메시지를 진부한 방식으로 전하는 예술작품의 경우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 원칙은 자율주의자의 공격으로부터 윤리주의를 지켜내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특히 맥락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작품은 도덕적 결합으로 인해 오히려 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를 부정하고 대신 관련의 방향성이 윤리주의가 채택한 대로 만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외견상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작품이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트는 이것을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사례, 즉 비도덕성이 미적 가치에 기여한 경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성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적 가치의 감소가 있었으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미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그것만큼’ 좋아진 작품의 미적인 측면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도덕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에도 도식적이거나 진부하거나 지루하거나 지나치게 훈육적이거나 예측가능하거나 유치하기에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에서 윤리적 관점으로 인해 상승된 미적 가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적해 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작품의 낮은 미적 가치가, 도덕성에서 기인한 미적 가치의 상승이 있었으나 여타 부분의 미적 가치들에 의해 상쇄되어 버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이 미적 가치의 상승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미적 가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적인 복수를 당연시 하는 관점, 여성이나 이민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관점을 승인하고 있는 고전 작품(예를 들어 반 유태인적 태도를 보이는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 현재 우리가 내리는 예술적 가치 평가가 그러한 비도덕성으로 인해 입은 미적 손실을 극복한 경우인지, 아예 그러한 미적 손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경우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 감상자들은 고대 소설에 나오는 여성 비하적 태도, 혹은 샤일록의 반 유태적 태도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작품의 미적 가치가 감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가 반드시 ‘미적 가치의 감소가 있었으나 다른 장점들에 의해 극복된 경우’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프로 탄토 원칙에 의존한 설명은, 마치 자신이 이미 다 외워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숫자가 모두 지워진 주사위로 게임할 것을 종용하는 딜러만큼이나 작위적이다.

그 외에도 윤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지적들을 몇 개 더 언급해보자. 앤더슨(James Anderson)과 딘(Jeffrey Dean)은 거트가 논문에서 『모비 딕』이 당시의 포경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려주더라도(인지적 가치) 이는 역시 ‘미적으로 연관된’ 가치가 아니라고 쓰고 있는 데 착안하여 윤리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례를 제기한다.<sup>26)</sup> (이는 거트의 세 번째 논변인 ‘적절한/마땅한 반응’ 논증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한 기술들

26) Anderson and Dean, *op.cit.*, pp. 159~160.

중에 작가 멜빌의 실수로 인해 잘 못된 사실이 섞여들어 갔다고 하자. 그렇다면 독자들은 이로 인해 잘못된 지식(거짓된 믿음을 형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unmerited) 반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sup>27)</sup> 그렇다면 미적 가치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거트의 예상되는 대답은 당연히 이러한 지식의 획득은 미적인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도덕과 관련된 적절하지 않은 반응만은 미적 연관성을 갖는가? 앤더슨과 딘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두 반응 중, 왜 포경업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는 미적 연관성이 없고, 예컨대 연쇄살인에 대한 인지적-도덕적 반응에는 미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윤리주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역시 미적 관련성의 작위성 혹은 순환성이다. 박상혁의 논문 역시 거트나 캐롤의 ‘적절한(merited) 반응’ 논증의 이해에 있어, 추가적인 전제가 덧붙여지지 않는 한, 이 논증이 하나의 작품에서 도덕적 결함의 원인과 미적 결함의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sup>28)</sup> ‘적절한 반응’이라는 개념조차도 중의적 사용되고 있다는 제이콥슨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sup>29)</sup> 즉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반응(남의 슬픔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과 미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스릴을 주지 못하는 스릴러)의 부적절함이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도덕적 부적절함이 미적 실패라고 논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곤혹스러운 반론들에 대하여 거트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이 ‘미적 관련성’의 순환적 사용과 작위적인 ‘프로 탄도’ 원칙의 적용뿐이라면 윤리주의는 유지하기 힘든 입장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27) 앤더슨과 딘은 이 예를, 긴장감이라는 ‘적절한’ 반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스릴러나 웃음을 주지 못하는 희극과 구조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는 듯하다.

28) 박상혁, 앞의 논문, pp. 130~132.

29) Jacobson, *op.cit.*, pp. 177~178.

#### 4. 작품의 관점과 도덕성, 그리고 도덕적 가치

그러나 이러한 윤리주의의 설명이 지닌 작위성이 비도덕주의(맥락주의)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찌되었건 윤리주의가 비도덕적이지만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 부분적인 도덕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식으로 설명해 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면, 이는 비도덕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사례를 보다 선명한 것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예는 ‘부분적인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비도덕성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윤리주의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던 작품의 관점에 근거한 도덕성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비도덕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제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비도덕적 세계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작품에 부여한 비도덕성 때문에 작품이 예술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로리타』(Lolita)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인 독해에 따르면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라 부를만하다. 물론 단지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소녀에 대한 병적인 성적인 집착을 가진 중년 남자가 등장하기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심과 태도가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옹호될 만 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주의자들도, 이 작품이 소아성애자의 내면에 상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는 작품이 이런 인물을 비난하는 도덕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제공할 수 있는 상상적 경험일 것이므로), 그런 인물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미화하고 있는 작품의 관점과 태도 때문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확보된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아성

애자에 대하여 비난적인 태도가 아닌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증가되는 미적 가치란 무엇일까?

이런 경우에 대하여 키이란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상상적 경험을 통해 증대되는 인지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들고 있는 예는 그린(Graham Greene)의 『파괴자들』(The Destructors)이다.<sup>30)</sup> 그러나 그의 설명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인식적 가치가 획득되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작품의 비도덕적 관점을 단지 인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인 것처럼 몰입해서 체화해 보거나 최소한 상상 속에서 동조해 볼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작품이 비도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 이상의 예술적 장치가 작품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즉 비도덕적 작품이 예술적 장치의 힘을 빌려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통찰을 준다면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도 들 수 있다. 이는 키이란에 대해 비판적 포인트의 하나로 송문영이 제기한 문제의식으로,<sup>31)</sup> 비도덕적 관점이 인지적 가치(특히 무엇이 도덕적인가와 관련된 인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품이라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자하는 이 글에서의 제안과 관련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이제 이를 거트의 대응 전략과 비교해보자. 거트는 『로리타』와 같은 작품들을 도덕적인 작품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AEE: 194~202). 즉 이 작품의 면밀한 독해는 이 작품의 관점을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보아야 하게) 하므로 이 작품은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예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거트의 『로리타』 해석은, 작가가 주도면밀하게

30) Kieran, *op. cit.*, pp. 67~71. 키이란을 비롯한 비도덕주의자들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송문영(2012),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비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미학과 석사 논문 참고.

31) 위의 논문, p.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눈치 챌 수 있게끔) 숨겨 놓은 단서들(명백한 과장과 비일관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소아성애적 태도를 변론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결국 비일관적인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으로 회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즉 감상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비도덕적 관점을 취하게 했다가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관점이 아님을 보다 실감나게 깨닫게 하는 고도의 도덕적 전략(그의 명명에 따르면 ‘유혹(seduction)전략’)을 사용한 경우로서 오히려 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도덕성을 미적 가치에 기여하는 도덕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괴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AEE: 193~194).

비도덕적이지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야 할 듯한 『로리타』와 같은 예술의 사례에 대해 윤리주의자가 프로 탄토 원칙을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울 경우, 작품의 관점을 재해석하여 이것을 더 이상 비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모든 비도덕적인 예술에 대해 이런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는 원론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해석의 다원성이나 불확정성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렇더라도 맥락주의를 지지할 듯한 모든 예를 재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의지의 승리』<sup>32)</sup> 같은 경우, 즉 비도덕적 이념이나 인물에 대한 찬양이나 프로파간다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 그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석 전략의 성공과 한계를 떠나서, 키이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필자가 보다 주목하려는 것은 거트가 『로리타』나 『파괴자들』을 도덕적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일견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작품에 숨어있는 도덕적인 관점을 찾아내는 것, 외견상 승인

32) Leni Riefenstahl 감독, 『Triumph des Willens』, 1935.

하는 듯 보이는 비도덕적 태도를 사실은 보다 고차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해석을 끌어내는 것에 근거한다. 작가는 왜 그러한 관점을 보다 주의 깊은 읽기에서나 발견될 수 있도록 숨겨 놓았을까? 거트의 해석을 존중한다면 작가가 외견상 보이는 메시지를 부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숨겨두는 식의 예술적 선택을 한 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지적 효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도덕적 효과 때문일 것이다. 즉 도덕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점은 키이란과 같은 비도덕주의자가 작품의 비도덕성을 통해 증가되는 미적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거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관점을 승인하는 모든 작품으로부터 도덕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에 있어 도덕적 효과란 그저 특정한 도덕적 명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캐롤, 거트, 초기 논문들에서 도덕주의를 주장하던 때의 키이란 등 많은 도덕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도 모두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그저 작품이 어떤 도덕적 관점을 택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건 작품으로의 몰입, 우리의 감정과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반성, 심화 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sup>33)</sup>

그런데 만일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도덕적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거나 “도덕 원칙의 적용 결과를

---

33) “... much of the value of art derives from its development of an affective mode of cognition, derives from the way works teach us, not by giving us merely intellectual knowledge, but *by bringing that knowledge home* to us. ... We all know we will die, but it may take a great work of art to drive that point fully home, *to make it vividly present.*” (Gaut(1998), *op.cit.*, p. 195) “... an art work may help us to learn through *imaginatively vivifying* the commitments and consequences of applying certain moral principles.” (Kieran(1996), “Art, Imagination, and the Cultivation of Morals”, *JAAC* 54, p. 338).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예술적 선택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도덕적 효과’에 달린 것이라면, 작품이 도덕적/비도덕적 관점을 취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위해 필수적인 지가 의문이다. 아무런 도덕적 관점을 지지하지 않거나 작품이 승인하는 도덕적 관점이 애매한 경우에도 작품은 도덕적으로 복잡하거나 민감한 상황에 대해 실감나게 느끼고 사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트의 『소피의 선택』과 같은 예처럼) 분명한 도덕적 함축을 갖는 인지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4)</sup> 또한 작품이 하나 이상의 각각 그럴듯한 그러나 도덕적으로 상반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sup>35)</sup> 그 중 어느 관점이 작품의 진짜 관점인지가 결정되어야만 도덕적 함축을 갖는 인지적 가치의 발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리주의자들이 도덕적이라고 간주하고 싶은 작품의 경우에도 과연 그 도덕성이 지지하는 관점의 도덕성에 근거한 것인지는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렘브란트의 『밧세바』<sup>36)</sup>는 거트에 의해 드로스트의 『밧세바』와 비교되면서 미적으로 관련되는 윤리적 장점을 지닌 작품으로 설명되고 있다(AEE: 20~25). 여기 등장하는 밧세바는 수심에 잠겨있고 덜

34) 예를 들어 『About a Boy』(Nick Hornby 원작, Chris and Paul Weitz, 2002)나 『가족의 탄생』(김태용, 2006)과 같은 영화가 승인하고 있는 관점이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 과연 이러한 통찰을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비도덕적인 것으로 거부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논쟁적일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최종적 의지치인 가족에서 구성원 간의 무조건적 포용 역시 미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Million Dollar Baby』(Clint Eastwood, 2004)는 그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건 결국 자비사(慈悲死)를 용인하는 관점을 보이는데, 이 역시 그 자체로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점이 무엇이건 이들 작품들이 가족이니 인간 존엄 같은 윤리적으로 목직한 주제들에 대해 숙고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지는 도덕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35) 예를 들어 『Boogie Nights』(P. T. Anderson, 1997)은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모습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도, 은연중에 그들의 삶을 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6) Rembrandt, 『Bathsheba with King David's Letter』, 유화, 1654년 작.

이상화된 육체를 보이고 있는 등 인간적인 갈등에 빠진 보다 현실적인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에 의해 어떤 도덕적 관점이 승인되고 있는 것일까? 왕의 명령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난의 관점일까? 관능적으로만 그려진 다른 작품들의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은 그러한 관점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태도일까? 이들은 가능한 후보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빛세바* 이야기에 등장하는 *빛세바*를 보다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한 것 자체에는 특별히 도덕적인 관점이라 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 이는 이 작품이 지지하거나 우리에게 동의하도록 요청하는 관점이나 태도가 도덕적이기에 그렇다기보다는, 램프란트의 여러 예술적 선택으로 인해 왕의 명령의 비도덕성과 *빛세바*가 처했음직한 상황의 곤혹스러움에 우리가 상상을 통해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효과를 통해 앞서 거트가 기술한 바와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 상태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지식을 실감나고 절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는 여기에 놓여있는 듯하다. “명백한 윤리적 진실을 승인하는 것보다 윤리적 삶을 탐구하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sup>37)</sup>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작품이 어떤 도덕적 관점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에 갖게 되는 도덕성,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비록 그것이 작품 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 평가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작품이 어떤 도덕적 태도를 옹호하건 지지하건 부정하건, 이것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별도임은 많은 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도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마치 앞에서 얘기한 재료의 도덕성(사체, 인권을 침해받은 사진 모델)이나 동기의 도덕성(심술, 인신모독)과 유사한 차원

37) Stecker(2005), “The Interaction of Ethical and Aesthetic Value”, *BJA* 45, p. 143.

으로 보인다.<sup>38)</sup>

## 5.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

윤리주의자와 비도덕주의자가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정)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비록 ‘관점의 도덕성’과 예술적 가치 간의 관계는 윤리주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련되지 않기에 포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말고도 여전히 예술적 가치와 긴밀히 연관된 도덕적 가치의 존재를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앞 선 논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예술의 도덕적 가치란 도덕적 측면에서 평가되기에 적절한 인지적 요소(믿음, 성향, 태도 등)를 작품으로부터 획득(작품이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작품의 예술적, 기술적 선택과 구성이 이를 통해 감상자에게 도덕적 통찰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을 때 가지는 가치인 것이다. 물론 예술이 인지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이 예술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인지는 예술과 도덕만큼이나 큰 논의 주제이다. 대개 사실에 관한 명제적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라면, 비록 예술로부터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술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술적 가치로서의 인지적 가치로서는 결격이겠으나 소위 비명제적 지식이나 통찰은 예술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상상적 몰입과

38) 이러한 귀결은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적 지식(예를 들어, 어떤 사실적 주장의 진위여부)은 비록 그것이 예술 내적인 진술들로부터 얻어진 것들이지만 예술적 가치로서의 인지적 가치로 간주되기 어려운 예술 외적인 것인데 비해, 감상자에 대한 외부적 효과로서 인지적 통찰이라는 결과주의적 귀결은 어쩌면 작품의 예술적 가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39) 예술이 인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논변들에 대한 정리는 김지나(2012),

생생함을 통해 얻어지는 도덕적 통찰도 그러한 비명제적 통찰과 관련되어 우리가 예술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전히 도덕적 가치/반가치인 이유는 감상자에게 인지되는 통찰의 내용이 도덕적/비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동시에 미적-예술적 가치인 것은 그 ‘통찰의 전달’이라는 효과(그것의 강도, 심도)가 예술적 수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술적 수완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적 변화를 매개로 한, 작품의 도덕적 영향력이나 효과’가 곧 ‘관점의 도덕성’과 구별되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술의 효과라는 것은 해롤드를 위시해 많은 이들에 의해 작품 외적인 기준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sup>40)</sup> 예를 들어, 작품의 관점이 어쨌든 간에 도덕적 효과가 큰 작품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무난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따라서는 바로 그러한 무난함으로 인해 도덕적 감화(?)의 효과가 크지 않은 작품을 도덕적 가치가 미미한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 용어법 상으로도 무리한 용법이 아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대로 도덕주의건 비도덕주의건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상상적 몰입을 통한 생생한 깨달음이나 통찰 같은 것이 일어나야 함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예술적 수완과 밀접하게 얽혀진 채 달성되는 도덕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필자

---

『예술과 지식에 대한 현대 영미 미학의 논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 미학과 석사 논문 참고

40) 반면 스테커는 거트의 책에 대한 서평을 통해, 거트가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평가를 내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의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필자의 생각에 고무적이다. Stecker(2008), “Book Review of Gaut’s *Art, Emotion and Ethics*”, *JAAC* 66.

는, 비록 감상자의 상이한 주관적 상태나 외부의 우연적 정황 등이 모두 포함된 실제 결과로서의 효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결과주의의 입장을 활용하여<sup>41)</sup>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예측 가능한 도덕적 효과와 관계된 속성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주동물의 제안과 같이, “그 감상이 정상적이고 주의 깊은 감상자들의 향후 삶과 행위에 주는 도덕적 영향(의 질)”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관점을 수용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구성하게 될 도덕적 통찰의 효과가 향해야 할 방향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동물이 제시한 의무, 덕, 이타심, 공동체감의 향상과 관련된 조건들을 그 방향이라고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sup>42)</sup>

그렇다면 왜 이것을 도덕적 가치의 판단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가치의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왜 이것이 윤리주의가 의도하였으나 보여주지 못했던, 동일한 속성 혹은 근거를 도덕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는가? 이 글을 통해 여러 번 강조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의미의 도덕적 가치는 작품이 단순히 그런 내용이나 관점을 포함했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임이 예측되어야 하는데, 그 수단이 결국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작품의 인지적 내용에 대한 상상적 반응(공감/몰입/관여)의 활성화를 생각해

41) 주동물이 결과주의적 시각으로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예술 작품의 도덕성 평가에도 적용한 결과에 기대고자 한다. 주동물(2007), 『예술과 도덕의 관계-입장들의 분류와 현대적 논의』, 『미학대계 3권 현대의 예술과 미학』, 미학대계간행회, pp. 279~302.

42) 위의 논문, pp. 299~300. 그에 따르면, 이 네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의무 관련적 효과는 다양한 인간관계(친구 가족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 사회적 의무(자선, 공공선의 증진 의무)를 보다 자주, 효율적이게 하는 행위 패턴의 강화, (2) 덕(virtue) 관련적 효과는 단지 규칙 준수를 넘어서서 도덕적 행위를 매 상황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심정적 기반의 증진/심화 (3) 최소한 극단적 이기주의적 동기/심리/행위를 탈피, (4) 공동체 성원들 간의 심정적 유대 증진, 공동체적 가치의 수용과 자신과의 일치.

보자. 이러한 상상력의 촉발은 전통적으로 예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지식에 관한 한은 예술 작품을 빌어 전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 작품을 통해 전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과장을 경계하면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최소한 작품의 예술적 수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예술적 통찰 및 그 전달 방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덕적 통찰도 그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함축을 가진 상상적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술적 수완에 달린 문제이다. 어떤 예술적 수완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거트가 제시하는 ‘도덕적 여정(moral journey) 전략’이나 ‘유혹 전략’을 포함하여, 상황 묘사와 등장인물 설정에 있어서 상상적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예술적 미덕들(박진감, 현실감, 입체감, 예기치 못했던 반전, 참신한 시각 등등)을 그 예로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적절한 감상자를 전제로 도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은 비평적 판단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며, 작품에 구사된 예술적 수완 및 선택이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예견되는 도덕적 영향력을 고려한 작품의 형식과 내용(예술적 속성)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매기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술적 속성들의 함수로서 평가되는 인지적-도덕적 가치는 곧 예술적 가치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전적으로 작품 내적인 기준인 작품의 관점을 평가하여 도덕성을 판단한다는 입장(기존 이론들의 전제)과, 전적으로 외적인 기준인 작품이 불러일으킨 실제 효과의 측면을 고려하여 작품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입장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전적으로 작품 내재적인 기준인 관점은, 전적으로 작품 외적인 기준인 실제 효과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예술적 가치와는 유리된 도덕적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을 뿐임은 윤리주의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점이다.

작품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비평적 판단은 작품의 효과의 방향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일지 여부와 그 효과의 강도, 심도 등이 어느 정도 효율적 일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적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는 작품은 효과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로 간주되지 못 할 것이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옳지 않음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작품은 정도의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표명이 없는 작품이나 비도덕적 세계관을 표명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라도, 그 세계관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요구하는 예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굳이 이것을 도덕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 없이, 그 효과의 효율성 측면을 만족시키는 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있어 논쟁적인 경우에도, 그러한 해석의 이증성 자체가 또한 예술적 장치로 이해된다면, 어느 관점이 작품의 진짜 관점인지에 구애될 필요 없이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입장의 귀결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풍부히 가진 작품은 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 조건을 더 잘 만족시켜 줄 예술적 수완이 강구되는 작품이면 그만큼 도덕적 가치도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효과로서의 도덕적 가치 없음이 곧 전체적인 예술적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인데, 효과로서의 도덕적 가치가 작품의 유일한 예술적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의 단골손님인 『의지의 승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관점의 도덕성 뿐 아니라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작품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아니다. 효과의 방향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프로파간다 작품들이나 선동적, 감상적 작품들이 그렇듯이, 일견 효과적으로 보이는 예술적 선택들도 도덕적 통찰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형식적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거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6. 마치며

예술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기에 보다 적절한 기준으로 제시된 예측되는 효과의 문제와, 그 기준으로 평가된 ‘예술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의 성격에 대한 필자의 설명이 가지는 타당성은 보다 더 넓은 스코프에서 검증받아야 하겠지만, 최소한 ‘관점으로서의 도덕성’과는 다른 의미로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의 직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비도덕적 관점을 승인한다는 이유로 작품을 비도덕적이라 부르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그러한 의미의 비도덕성이라면 예술적 가치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지지하는 관점이 비도덕적이거나 관점의 도덕성 여부가 애매하거나 관점이 다층적이거나 관점을 아예 판단할 수 없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기대되는 도덕적 효과가 클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역시, 동시에 예술적 가치)를 풍부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명백히 도덕적인 관점을 가졌으나 지루함 등과 같은 예술적 문제로 인해 도덕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작품은 도덕적 가치(그리고 동시에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도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의 비평적 속성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적 평가와 도덕적 평가가 연동되는 경우이며 필자는 이것이 두 가치의 관계에 대해 윤리주의가 원했던 바로 그 경우라고 생각한다.<sup>43)</sup>

43) 익명의 세 심사자들이 필자가 이러한 입장을 택함에 있어 보다 더 치밀하게 생각해

---

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필자가 ‘예측 가능한 도덕적 효과’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는 감상자의 도덕적 성향과 역량(혹은 감상자의 주관적 조건)에 기초한 개별적 사례별(case-by-case)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작품의 예술적 속성을 섬세하게 인지한 결과 더 세련되게 부도덕한 행동을 갖게 되는 변화 같은 것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필자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문에서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실제 반응이 아닌 비평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비평적 판단이 효과의 심도나 강도뿐 아니라 ‘효과의 방향성’도 고려한다는 제안을 통해 해소해 보려했던 것이나, 그 귀결과 정합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논변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측 가능한 도덕적 효과를 굳이 인지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 역시, 현재 필자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논평자의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필자의 입장을 위한 추가적인 논변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 참고문헌

- 김지나(2012), 『예술과 지식에 대한 현대 영미 미학의 논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 미학과 석사 논문.
- 박상혁(2007), 『도덕적으로 나쁜 예술작품이 미적으로 좋은 예술작품일 수 있는가?』, 『미학』 50, 한국미학회.
- 송문영(2012),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비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미학과 석사 논문.
- 주동률(2007), 『예술과 도덕의 관계-입장들의 분류와 현대적 논의』, 『미학대계 3권: 현대의 예술과 미학』, 미학대계간행회.
- Anderson, J. and Dean, J.(1998), “Moderate Autonomism”, *BJA* 38.
- Carroll, N.(1998), “Moderate Moralism versus Moderate Autonomism”, *BJA* 38.
- \_\_\_\_\_ (2000),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Ethics* 110.
- \_\_\_\_\_ (2004), “Art and the Moral Realm”, in P. Kivy (ed.), *The Blackwell Guide of Aesthetics*, Blackwell.
- Gaut, B.(1998),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in J. Levinson (ed.), *Aesthetics and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Art and Ethics”, in B. Gaut and D. Lopes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Aesthetics*, Routledge.
- \_\_\_\_\_ (2007), *Art, Emotion and Ethic*, Oxford University Press.
- Harold, J.(2006), “On Judging the Moral Value of Narrative Artworks”, *JAAC* 64.
- Mullin, A.(2002), “Evaluating Art: Morally Significant Imagining versus Moral Soundness”, *JAAC* 60.
- Jacobson, D.(1997), “In Praise of Immoral Art”, *Philosophical Topics* 25.
- \_\_\_\_\_ (2008), “Book Review of Gaut’s *Art, Emotion and Ethics*”,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March 2008.
- Kieran, M.(1996), “Art, Imagination, and the Cultivation of Morals”, *JAAC* 54.
- \_\_\_\_\_ (2003a), “Forbidden Knowledge”, in Gardner and Bermudez (ed.), *Art and Morality*, Routledge.

\_\_\_\_\_ (2003b), “Art and Morality”, in J. Levin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Stecker, R.(2005), “The Interaction of Ethical and Aesthetic Value”, *BJA* 45.

\_\_\_\_\_ (2008), “Book Review of Gaut’s *Art, Emotion and Ethics*”, *JAAC* 66.

\* *BJA*: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 *JAAC*: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원고 접수일: 2013년 5월 6일

심사 완료일: 2013년 5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8일

ABSTRACT

---

## Morality of a Work and its Moral Value

- Criticizing Gaut's Ethicism -

Lee, Haewan

Can a work of art be artistically good or bad by virtue of its moral features? I critically examine Ethicism, Berys Gaut's version of moralism, which partly claims that artwork is aesthetically defective in so much as it is morally defective. I find this is not a coherent position to maintain as it would face difficulties in handling some intuitively unfavorable cases. However, what I find more interesting is what lies behind this incoherence which stems from unclarity concerning how to judge the moral value of an artwork. It is my belief that we are not very attentive about a possible distinction between the 'morality of a work' and the relevant sense of the 'moral value of the work.' It is legitimate to evaluate a work in terms of moral standards, for example whether a work as a whole endorses a morally problematic point of view. This determines the morality of the work. However, I argue that this so-called 'point-of-view morality' does not determine the moral value of the work. A work's moral value has to do with its capacity to influence the audience in morally significant ways. In order to decide the moral value, we may have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the moral influence and artistic choices for this goal and not merely whether it endorses a certain point of view. For example, the audience would be able to utilize the immorality of the work to reflect upon their own moral sensitivity and scope, as immoralists claim. We can also think of a moral piece of work (that has a point of view morally praiseworthy) which has no moral influence to the audience reasons being; since it is too naive, too pedantic, too predictable, etc. Therefore, utilizing consequentialist's view on moral value, I suggest how to evaluate a work's moral value as an artistic value, where moral and artistic evaluation is one and the same. I believe Ethicism too, in spirit, wanted to establish this but was not able to do so due to its implicit identification of a work's 'point-of-view morality' with its moral value.

